

## EXODUS 25 (25:1–40) — The Heart that Builds a Sanctuary

### Key Mussar Teachings

#### English

“Take for Me a contribution... from every person whose heart moves him” (25:2). Rashi stresses: it must be **לב נדבת (freewill of the heart)** — not coerced giving.

**Mussar:** holiness begins where the will is purified: I give because I *choose* to align with Heaven, not because I’m pressured.

**Ramban** (on Terumah’s opening) highlights: the Mishkan continues Sinai — a way for the Presence to dwell among Israel.

**Mussar:** spirituality is not “peak moments only.” We must **build continuity** after revelation: habits, structures, daily practices that hold the fire.

**The Ark comes first** (25:10–22): Torah-center before aesthetics. (Common rabbinic principle in commentaries.)

**Mussar:** if my life has “beautiful curtains” but no inner Ark (truth/discipline/Torah), it’s a shrine to self. Put the core first.

**Cherubim facing each other** (25:20). Rabbinic tradition often reads this as relational harmony linked to the Presence.

**Mussar:** the Shekhinah rests where there is **repaired relationship** — I can’t claim devotion to Heaven while refusing repair with people.

**Zohar (Terumah themes):** the Mishkan mirrors the cosmic pattern; physical details correspond to spiritual channels.

#### 한국어

“마음에 원하는 자에게서 예물을 취하라”(25:2). 라쉬는 이것이 **자원하는 마음(לב נדבת)** 이었고 강요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.

**무사르:** 거룩함은 의지의 정련에서 시작된다. 억지로가 아니라 “하늘과 정렬되기 위해” 자원하여 드린다.

**람반**은 성막이 시내산 계시의 연속이며,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“거하도록” 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.

**무사르:** 영성은 정상(頂上)의 순간만이 아니다. 계시의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**삶의 구조(습관/규칙/루틴)**를 세워야 한다.

**언약궤가 우선**(25:10–22): 토라를 중심을 하는 것이 외적 부흥보다 우선이다.

**무사르:** 겉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의 “궤”(진리/절제/토라)가 없으면 결국 장식으로 세워진 그 외면은 자기 숭배가 된다. 핵심을 먼저 세워라.

**그룹이 서로를 마주 봄**(25:20): 현인들의 전통적 해석은 관계의 조화가 임재와 연결됨이라 가르친다.

**무사르:** 쉼키나는 **관계가 수선된 자리에** 머문다. 사람과의 화해를 거부하면서 하늘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.

**조하르(테루마 관련 주제):**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며, 물질 내역의 세부는 영적 통로와 부합한다. **무사르:**

## English

**Mussar:** my “small actions” are not small. A precise deed can open a channel; a careless deed can block it.

**Chassidut/Tanya-style reading (general):** “dwelling below” happens through inner refinement of thought/speech/action.

**Mussar:** build a Mishkan in the mind: what I repeatedly think becomes an altar.

## Chapter 25 — Practical Mussar (EN/KR)

- **EN:** Choose one “terumah”: time, attention, money, apology — and give it *freely* this week.
- **KR:** 이번 주에 “자원제” 하나를 정해 자원함으로 드러라: 시간/집중/헌금/사과/섬김.

---

## EXODUS 26 (26:1–37) — Hidden Beauty, Boundaries, and Inner Alignment

### English

The **inner curtains** are richly woven (26:1), while outer coverings are simpler. Many commentators note the inward beauty.

**Mussar:** the truest beauty is the one **no one sees** — integrity, private humility, hidden charity.

**The boards stand upright and joined** (26:15–17). Rabbinic moral reading: stability + interlock.

**Mussar:** spirituality collapses without **consistency** and **community connection**. Be a “board” that locks in — show up and stay aligned.

The **veil** divides holy and holiest (26:33). **Sforno**-type approach often emphasizes ordered access to sanctity.

**Mussar:** boundaries are not coldness; they are **guardrails for intimacy**. Without boundaries, holiness leaks.

### 한국어

“작은 행위들”은 작지 않다. 정밀한 선행은 통로를 열게하고, 무심한 죄는 통로를 막는다.

**하시두트/타나적 관점(일반):** ‘하늘 아래에서의 거처’는 생각·말·행동의 내적 정련으로 이루어진다.

**무사르:** 마음 안에 성막을 세워라. 내가 반복하는 생각은 곧 제단이 된다.

### 한국어

**안쪽 휘장**은 정교하고(26:1), 바깥 덮개는 비교적 소박하다. 이는 “내면의 아름다움”을 시사한다.

**무사르:** 가장 참된 아름다움은 **아무도 보지 않는** 곳에 있다 — 정직, 은밀한 겸손, 숨은 자선.

**널판이 곧게 서서 서로 맞물림**(26:15–17).

**무사르:** 지속성과 공동체의 연결이 없으면 영성은 무너진다. “맞물리는 널판”처럼 꾸준히 참여하고 정렬을 유지하라.

**휘장이 지성소를 구분**(26:33). (스포르노 계열: 거룩함에는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.)

**무사르:** 경계들은 냉정함이 아닌 **친밀함을 지키는 보호벽인 난간**이다. 경계가 없으면 거룩함은 새어나간다.

## English

**Zoharic motif:** partitions and layers reflect gradations of light.

**Mussar:** don't demand "highest light" while refusing "lower work." Purity is climbed step-by-step.

**Chassidic/Tanya tone:** concealment is not absence; it is a form of divine pedagogy.

**Mussar:** when life feels "covered," treat it as training in faithfulness, not proof of abandonment.

## Chapter 26 — Practical Mussar (EN/KR)

- **EN:** Add one boundary: a screen limit, a speech restraint, a money rule — to protect holiness.
- **KR:** 경계를 설정하라: 화면 시간 제한, 언성의 절제, 소비 규칙 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다.

## EXODUS 27:1–19 — The Altar, the Courtyard, and the Discipline of Approach

### English

The **altar is outside** (27:1–8). Before entering, one meets sacrifice.

**Mussar:** the first gate is not "feeling spiritual" but **surrendering ego**. My pride must be offered before my prayer becomes clean.

**Ibn Ezra / peshat focus** often highlights practical function: the altar is durable, portable, ordered.

**Mussar:** build practices that travel — faith that works on ordinary days, not only in special places.

### 한국어

**조하르적 모티프:** 구분과 겹은 빛의 등급을 반영한다.

**무사르:** "찬란한 빛"을 원하면서 "천하다고 여기는 일"(기본 순종/훈련)을 거부하지 말라. 순결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.

**하시두트/타나 톤:** 감춤은 부재가 아니라 신성한 형태의 교육 방식이다.

**무사르:** 삶이 "덮인 듯" 느껴질 때,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"신실함을 훈련"하는 때로 받아들여라.

### 한국어

**제단은 바깥에 있음**(27:1–8). 제단에 다가가기 전에 희생을 만나게 된다.

**무사르:** 첫 관문은 "영적 감화"이 아니라 **자아의 항복**이다. 나의 기도가 맑아지려면 네뱌쉬의 교만이 먼저 제단에 올라가야 한다.

**이븐에즈라/페샤트적 관점:** 제단은 견고하고, 이동할 수 있으며 질서가 있다.

**무사르:** 어디서든 역동하는 신앙을 만들어라. 특별한 날/장소에만 있는 신실함이 아니라, 평상시에도 "이동 가능한" 훈련으로 세워라.

## English

The **courtyard** sets a perimeter (27:9–19): access is real, but not casual.

**Mussar:** don't treat holy things casually — prayer, marriage, truth, Torah. Familiarity can become contempt.

**Midrashic spirit:** measurements teach proportion — each part has its place.

**Mussar:** serve with balance; zeal without measure becomes burnout, measure without zeal becomes dead routine.

**Zoharic lens:** the altar corresponds to transformation of harshness into sweetness (din → rachamim).

**Mussar:** don't waste pain — bring it to the altar: turn resentment into prayer, shame into repair, anger into discipline.

## Chapter 27 (to v.19) — Practical Mussar (EN/KR)

- **EN:** Identify one ego-pattern to “offer”: defensiveness, control, sarcasm, impatience — and practice one concrete reversal daily.
- **KR:** 제단에 올릴 자아 패턴 하나를 식별하라: 방어적인 태도, 통제, 비꼼, 조급함 — 그리고 매일 한 번 “반대로 행하기”를 실천하라.

## 한국어

**뜰의 경계**(27:9–19): 접근은 열려 있지만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.

**무사르:** 거룩한 그릇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— 기도, 결혼, 진리, 토라. 익숙함이 경홀로 타락할 수 있다.

**미드라쉬적 정신:** 척량된 치수는 “균형”을 가르친다 — 각 지분은 그 위치가 있다

**무사르:** 균형 있게 섬겨라. 절제 없는 열심은 소진이 되고, 열심 없는 절제는 죽은 습관이 된다.

**조하르적 렌즈:** 제단은 엄격함(din)이 자비(rachamim)로 전환되는 자리와 일치한다.

**무사르:**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.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라: 원망을 기도로, 수치를 회복으로, 분노를 훈련으로 바꾸라.

---

## Integrated Mussar Map (25–27:19)

### English

**25:** Give from the heart → build the inner Ark (core truth).

**26:** Build hidden beauty + boundaries → stability and alignment.

**27:** Approach through sacrifice → disciplined access, balanced service.

### 한국어

**25 장:** 마음으로 올리는 것에 → 내면에 진리의 언약궤를 구축하는 것이다.

**26 장:** 숨은 아름다움에 + 경계를 구축하는 것은 → 안정과 정렬을 이룬다.

**27 장:** 희생을 통해 다가 갈 때에 → 훈련된 접근, 균형 잡힌 섬김을 이룬다.

**EN:** The Mishkan is not only a place you enter — it is a self you become.

**KR:** 성막은 단지 육신으로 “들어가는 장소” 뿐만이 아니라, 성막으로 “되어 가는 자아 (네웨어)”이다.